

## Latin American Culture

### 문화예술

## 6월의 기억: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sup>1)</sup>

### 차경미

UN 회원국으로서 나의 조국이 형제국인 한국의 위기  
상황아래 파병을 통해 협력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 훌리오 카세레스

나와 동료들 그리고 콜롬비아 대대 지휘관들은 UN군  
의 일원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개인적인 영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라틴아메  
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조국의 명예를 드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루이스 세폴베다

나는 전쟁보다는 먼 미지의 땅에 대한 호기심이 앞섰  
다.

— 호르헤 가비리아

나의 참전 결정에 가족은 몹시 괴로워했다.

— 페드로 파블로 고메스

로물로 올라야, 아르키메데스 로드리게스, 벤하민 포르투엘, 이디아스  
인키피에 링콘, 라미레스 카예 삼형제..... 이런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머물러 본 적이 없다. 이들은 60여 년 동안 자국 정부와 국민  
에게는 철저히 망각된 채로 한국전쟁의 상흔을 가슴에 품은 채 사망했  
거나 그저 병들어 늙어가는 80세의 노인일 뿐이다.

1) 이 글은 라미레스 카예 씨를 포함한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라미레스 카예 (2014년 2월 필자 촬영)

1950년 12월 29일 라우레아노 고메스(Laureano Gómez) 콜롬비아 대통령은 법령 3927호를 통해 한국 파병을 목적으로 ‘콜롬비아 대대’라고 부르는 보병대대를 창설했다. 이념적으로도 반공 및 친미성격을 띠고 있었던 보수정권은 정치적 폭력사태로 인한 정국혼란 상황에서 반공과 자유우방 수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전쟁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1951년 5월 21일, 콜롬비아 청년 1,086명은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태평양연안 최대 항구인 부에나 벤투라에 도착하여 미지의 땅 부산으로 향하는 미 군함 아이켄 빅토리(Aiken Victory) 호에 몸을 실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26일 동안 이들은 미 육군 빅토르(Victor) 대령의 지휘 아래 신무기사용법, 군사훈련 그리고 정신교육을 받았다.

6월 15일 부산에 도착한 콜롬비아 병사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미군 제24단에 편입되었다. 실전경험은 부족했지만 8월 7일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Alvaro Valencia Tovar) 장군 지휘 아래 첫 전투에 투입되

었고, 이후 최전선에서 중공군에 맞서 격전을 벌였다. “너희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중공군의 선동방송에 병사들은 참전을 만류하던 가족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8월 31일 동료 호세 델리오 사파타(José Delio Zapata)의 첫 희생을 목격한 이후 병사들은 전쟁은 모험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1,086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연대를 시작으로 1953년 7월 6일까지 모두 4개 연대가 파병되었다. 콜롬비아 청년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으며, 무엇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참전용사들은 자국 정부가 내세운 집단 안보 보장의 도덕적 책임과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되새기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자국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전쟁 파병을 목적으로 창설된 콜롬비아 대대의 병사들은 군사 훈련으로 단련되었거나 전쟁 수행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 자원병도 아니었다. 각 지역수비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병사 중에서 상관이 차출한 것이었다. 물론 일부 병사는 친구의 권유나 가족의 참전에 모험과 호기심으로 군 입대를 앞당겨 파병부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안티오키아 출신의 라미레스 삼형제(16세, 18세, 20세)는 한꺼번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한국전쟁 참전 시기에 콜롬비아 정부는 정치적 폭력사태로 확산된 사회적 불안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1948년 보수세력의 준립을 위협하던 급진자유주의 지도자 호르헤 엘리세르 가이탄의 암살을 계



1951년 5월 21일 콜롬비아에서 거행된 한국전쟁 파병부대 출정식 (출처: El Tiempo)





1952년 3월 15일 라미레스 삼형제 그리고 아버지 (출처: El Espectador)

기로 정치적 갈등은 폭력사태로 비화되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보수정권은 연립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정치적 대립과 불안 해소  
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집권보수당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권력기반 강화를 시도하였고, 동부 평원지대에서는 보수 독재체제에 반발한 지식인들의  
지원으로 조직적인 게릴라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반정부 게릴라 활동의 확산과 국내 정치폭력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반공주의를 국내 정치적 갈등 및 기존질서에  
대립하는 모든 형태의 대항 이념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였다. 한국전쟁 파병은 보수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주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참전 기간에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았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억압적 통제 기구를 강화  
시켰다.

한편, 장기간의 국내 폭력사태로 인해 콜롬비아 군은 무력감, 사기저하, 실전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심기일전의 전환이  
필요했다. 게다가 콜롬비아군은 한국전쟁 참전을 군 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콜롬비아군은 미국식 장비, 행정체계, 우편제도

등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장교 훈련에서도 전문화가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콜롬비아군의 한국 파병은 미국의 적극적인 한국전쟁 개입과 콜롬비아 정부의 안보, 경제, 정치적 이해가 상호작용하면서 추진되었다.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은 참전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다국적군 편성을 위한 자원병 모집 등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한국전쟁을 서반구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호공존에 관한 미주기구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만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파병을 결정한 이유는 국내 사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가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적 질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당시 대내적 위기상황 속에서 보수정부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1951년을 시작으로 1953년까지 총 4,058명의 콜롬비아 청년은 머나먼 이국의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156명 사망, 610명 부상 그리고 69명이 실종되었다.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인천시 콜롬비아 공원)  
(출처: <http://blog.ohmynews.com/acebike/365040>)

차경미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